

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추진
외국인 투자금지 규제도 철폐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 가속도
대규모의 투자자 유입 기대감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규제기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포함했던 만큼, 당에서도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양 동안 갑)과 민주당 의원 29인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규제기구 ‘한국디지털자산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업협회’의 설립도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는 금융의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라면서 “이제는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법안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 하반기 법안 제정이 목표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규제 수준은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법안 내용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원

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기업은 현금이나 예금,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기존 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감독 주체를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견해차가 있었는데,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등 경제·금융당국의 재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책 업무 위주로 재편될 금융위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주관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하고, 국내 시장의 ‘갈라파고스화’의 원인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투자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와 가상자산 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정책의 설계를 담당할 예정이며, 협회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규 상장·폐지·유지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안에 가깝지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한다.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맞물려 금융기관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자본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대규모의 투자자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안이 아니라 산업 성장을 위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법안 안에서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도 필요하지만, 방향 설정 만큼이나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화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전국 국민평형 7억 시대… 1년 새 1억 가까이 상승

공사비·설계기준 변화 영향
실수요자는 청약 서둘러야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전국 분양가 평균이 7억원을 넘어섰다. 건축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인상과 함께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으로 1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

11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공급된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억72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 6억7738만원보다 9496만원 올랐다.

전용 84㎡ 기준으로 서울이 17억 6735만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쌌다. 제주(8억8625만원)와 부산(7억 8775만원), 대구(7억7081만원), 경기(7억5077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일단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폭이 컸다.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 등 건축자재의 가격은 물론 건설 인건비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등 설계 기준의 변화도 분양가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가는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예전처럼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공사비 부담이 더 반영된 단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수요

자라면 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경기 광주시에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 59~161㎡, 아파트 818가구(일반분양 817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72실을 더해 총 8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김포시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블록에 짓는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8개 동, 전용 59~84㎡, 총 1769가구로 조성된다. 15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기 용인시에는 ‘클러스터용인 강남아너스빌’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세대 규모다. 양지지구에 처음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이다.

지방에서는 GS건설이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 84~120~168㎡,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원에도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 59~84~125㎡ 총 1238가구 규모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대전지방보훈청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만세 적금 최고 8.15% 금리

하나은행은 11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은행과 대전지방보훈청이 협력해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8.15%의 금리를 적용한다. 가입 금액은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이다.

먼저, 하나은행은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손님에게 연 2.0%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5년(광복 80주년) 출생 신생아 또는 부모 연 2.0% ▲하나은행 첫 거래 손님 연 1.15% ▲태극기 게양하기 등 나라사랑 실천 서약 완료 손님 연 1.0% 등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손님 만기이자 금액 중 815원과 하나은행의 추가 지원금 815원을 합해 계좌당 총 1630원을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한다.

‘대한민국만세 80주년’ 적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8만 1500좌 한도로 판매되며, 이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GS건설, 성수1구역 ‘세계적 랜드마크’ 승부수

프리츠커상 치퍼필드와 협업
초고층 기술·디자인 모두 확보

GS건설은 설계사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 손잡고 성수전락 제1정비구역에 대한 차별화된 설계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립했으며, 영국 런던을 본사로 독일 베를린, 이탈리아 밀라노,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무소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독일 베를린의 신박물관 복원 프로젝트와 제임스 시몬 갤러리, 중국 상하이의 웨스트번드 미술관 등이 있다.



자이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새롭게 단장한 대치동 자이갤러리 전경. /GS건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자이(Xi)’와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의 협업은 아파트 설계 디자인에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을 도입한다는 데 의미가 있

다”며 “GS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성수전락 제1정비구역에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건축적 완성도와 도시 상징성을 갖춘 미래형 주거 공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의 종합설계를 수행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 ‘ARUP(에이럽)’과 초고층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GS건설은 초고층 주거시설에 필수적인 구조, 설비, 안전 관련 핵심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역량까지 갖추게 되면서 한강변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성수 1구역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

GS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성수전락 제1정비구역을 단순 주거 단지가 아닌, 도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